

설교자를 위한 성지 가이드 III

- 이집트의 성지(聖地) I

장흥길 ≪ 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해 『성서마당』 가을과 겨울 호에서 두 번으로 나누어, 설교와 성경공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를 위한 ‘성지 가이드 연재물’로 ‘이스라엘의 성지’를 소개하였다. 금년 봄 호에서는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성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인 이집트의 성지를 안내하려 한다. 이집트 역시 메소포타미아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해 있던 중요한 성지이다. 그것은 이집트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이 고대 문명의 꽃을 피웠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發祥地)일 뿐 아니라, 구

속사(救贖史)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강대국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피신처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언급된 이집트의 성지를 살펴보는 것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불가피한 과정이며,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집트의 성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는 먼저 그 개론적인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언급된 이집트의 성지를 개괄적인

지리적 구분에 따라 ‘하 이집트’, ‘중부 이집트’, ‘상 이집트’, ‘시내 반도’로 나누어 차례대로 안내하고자 한다. 기고물의 지면(紙面)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집트의 성지’도 ‘이스라엘의 성지’처럼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하려 한다.

II. 이집트 성지의 개론적 안내

1. 이집트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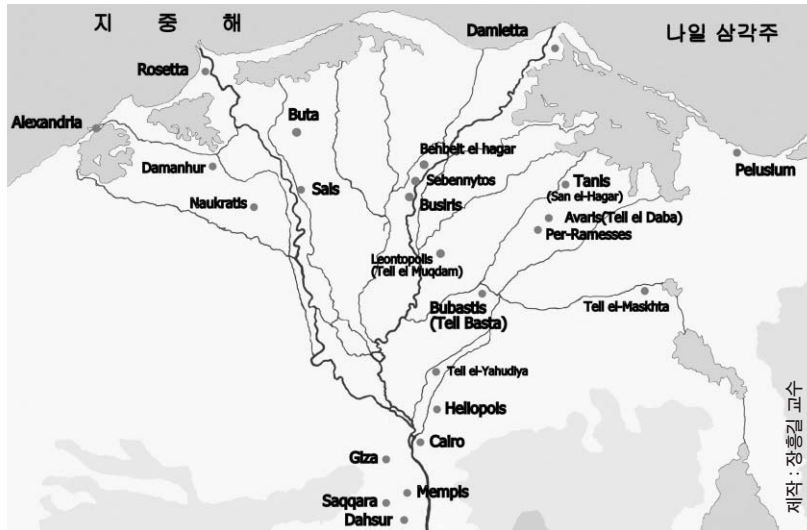
‘이집트’(Egypt)는 고대 수도 멤피스(Memphis, Memfī)의 초기 이름이었던 ‘하-쿠-프타’(Ha-ku-ptah)에 대한 그리스어 명칭(*Aígyptos*)과 라틴어 명칭(*Aegyptus*)에서 유래된 영어 명칭이다. 이집트인들은 이 땅을 ‘사랑받는 땅’이라는 뜻의 ‘타-메리’(Ta-meri)나, 또는 나일 강의 범람으로 생긴 비옥한 토양의 색깔을 따라 ‘검은 땅’이란 의미로 ‘케메트’(Kemet)로 불렀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곳이 ‘미스라임’

(Mizraim)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대홍수 후 노아의 큰 아들 함의 네 아들 이름을 열거한 목록인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창 10:6).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성경에 언급된 이 고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의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항공을 ‘미스르(MS) 항공’으로 부름으로써 옛 명칭을 현대 지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지리적 개관

이집트의 지형은, 주전 5세기 당시 그리스인 역사가이자 여행가인 헤로도토스(Herodotos)가 자신의 『사기』(*Historiae*) 제2권에서 이집트를 ‘나일 강의 선물’로 묘사한 것처럼, 나일 강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땅은 나일 강 일대와 그 주변 지역인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위치해

::성경과 성지



나일 델타지역 지도

있는 ‘달의 산’인 루웬조리(Ruwenzori)에서 발원(發源)한 ‘백(白) 나일’(White Nile)과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시작한 ‘청(靑) 나일’(Blue Nile)이 카르툼(Khartoum)에서 합류하는 나일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약 6,677km)으로 이집트 땅을 지날 때는 현재 수단과의 국경인 아스완(Aswan) 이남 지역에서 하류 델타 지역까지 약 1,250km를 90m의 표고차로 완만하게 흐른다. 나일 강 주변의 너비 16-50km 지역은 농경이 가능한 옥토로 대부분

의 주민이 사는 거주지이고, 그 밖의 땅은 모두 사막과 광야이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드문드문 끼어 있어 가끔 오아시스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나일 강을 구분할 때, 이 나일 강을 따라 이집트는 상·하 이집트로 구분되는데, ‘상 이집트’(Upper Egypt)는 수단 국경(고대 누비아)에서 아스완을 거쳐 하류의 델타 직전의 도시 카이로에 이르기까지 길이 960km의 나일 강 주변 지역을 가리키며, ‘하 이집트’(Lower

Egypt)는 나일 강이 카이로(Cairo)를 지나 지중해에 이르기 전 약 200km 지점부터 부챗살처럼 여러 지류(支流)로 갈라져 오랜 기간의 퇴적에 의해 그리스어 철자 델타(Δ) 모양으로 형성된 남북 길이 184km, 동서 너비 200km에 이르는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고센 땅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창 46:28-47:31). 본 기고물에서는 상·하 이집트 사이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카이로와 파이움(Fayum) 사이를 ‘중부 이집트’로 분류하고, 카이로 이북 나일 하류 델타 지역은 ‘하 이집트’로, 파이움 이남 나일 상류 지역은 ‘상 이집트’로 나누어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나일 지역 외에 이집트는 시내(Sinai) 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홍해 만과 동쪽으로 아카바 만을 끼고 있는 V자형 반도로, 대부분 지역이 광야이고 단지 몇 군데만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을 뿐이다. 고대에는 이 지역 광산에서 구리와 옥을 캐었고,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과 함께 이동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3. 역사적 개관

선사(先史) 시대의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 강 주변으로 상·하 이집트에 흩어져 살던 여러 작은 부족들이 있었으나, 최초의 파라오 메네스(Menes)에 의해 상·하 이집트가 통일됨으로써 파라오 시대의 막을 올렸다. 주전 4세기 이집트 총독과 파라오를 지냈던 마네토(Manetho)에 의하면, 주전 3100년 경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파라오 호르-아하(그리스 명으로 메네스 [Menes] 혹은 민[Min])에서부터 주전 343년 넥타네보(Nectanebo) II 세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집트 역사에 중간기들을 포함한 세 왕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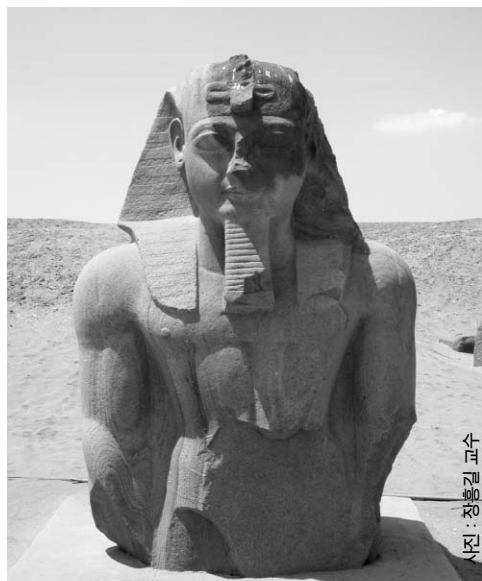
카이로 국립박물관 입구의 파피루스와 연꽃

30개 왕조, 그리고 185명의 파라오가 등장한다.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파라오가 등장했던 초기 왕국 시대(주전 31-27세기, 제1-2왕조)에는 티니스(Thinis)가 수도였다. 티니스에서 멤피스로 천도한 고(古) 왕국 시대(주전 27-22세기, 제3-6왕조)에는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하였으며, 기자(Giza)에 대(大)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그 후 중(中) 왕국에 이르기 전 제1중간기(주전 22-20세기, 제7-11왕조)에는 지방의 왕

족들이 득세함으로써 파라오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왕국(주전 20-18세기)이 시작되었던 제12왕조 때는 많은 기록물들과 예술품들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중왕국과 신(新) 왕국 사이의 두 번째 중간기(주전 18-16세기, 제13-17왕조)에는 아시아 계 히소스(Hyksos)에 의해 이집트에 외래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때에는 델타 지역의 아바리스(Avaris)가 이집트 통치의 중심지였다. 대부분의 성서 학자들은 이 시기에 요셉이 이집트

의 총리가 되었다고 여긴다. 이집트를 이런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 파라오는 신(新) 왕국 시대(주전 16-11세기, 제18-20왕조)를 열었던 아흐모세(Ahmosé) I 세였다. 당시는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거쳐 서부 아시아까지 진출을 기도(企圖)했던 제국 시대였다. 이 신 왕국 시기에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렀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였다(출

12:40-41). 특히 제19, 20왕조는 '라암셋(Ramses)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세 번째 중간기(주전 11-8세기, 제21-24왕조)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파라오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솔로몬 사후 이집트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보좌를 엿보던 여로보암이 피신한 곳이기도 하였다. 제22왕조를 시작한 파라오 시삭(Sheshonk I)은 르호보암 왕 제5년인 주전



타니스(산 엘의 라암셋 2세 석상)

922년에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왕상 14:25-26),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을 공격하여 500년 전 투트모세(Tutmose) Ⅲ세가 했던 것처럼 므깃도에 승전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디오피아와 앗수르가 이집트의 주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던 제25, 26왕조 때(주전 750-525년) 이집트의 국력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주전 700년경 유다 왕 히스기야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구스(누비아) 왕 디르하가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원정하였으며(왕하 19:9), 주전 610년 왕위에 오른 파라오 느고(Necho Ⅱ)가 앗수르와 싸우기 위해 유다를 통과할 때 므깃도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기도 하였다(왕하 23:29-30). 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인 주전 588-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

여 공격할 때 파라오 호브라(Hophra 혹은 Apries)가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를 도와 바벨론을 물리치려 했으나 무위로 끝난 적도 있었다(렘 44:30).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예언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은 시위대장에 의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집트 다바네스로 끌려가기도 하였다(렘 43:6-7).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므깃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에 거주하였다(렘 44:1). 페르시아의 캄비세스(Cambyses Ⅱ)에게 정복당한 이집트는 제27왕조에서 제30왕조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주전 525-341년), 이로부터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주전 332년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주전 30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는 헬라적인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되었고, 주전 30년 이래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다스렸던 395년까지 이집트는 로

마령이었으며, 그 후 이슬람이 이곳을 장악할 때인 주후 639년까지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 이집트 일대(특히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였으며, 신약 시대에는 아기 예수의 가족이 헤롯왕의 유아 살해를 피해 이곳에 피신하여 머물기도 하였다(마 2:13-23).

요약하면,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함께 성지 이스라엘의 양대 주변국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라는 구속사(救贖史)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집트의 역사와 파라오의 통치 업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면, 이집트학자이자 고고학자인 클레이턴(P. A. Clayton)의 저서 『파라오의 역사』(*Chronicle of the Pharaohs*)를 참조할 만하다.

4. 고대 이집트학(Egyptology) 개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고대 이집트학의 주제들을 간단히 일별하면, 앞에 언급한 ‘역사’, ‘지리’ 외에도 ‘피라미드’, ‘파라오’, ‘신(神)들’, ‘미라’, ‘일상생활’, ‘상형문자’, ‘진설’, ‘나일 강’ 등을 들 수 있다. 그 자세한 것을 알려면 고대 이집트학을 다룬 문헌들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풋남(J. Putnam)의 『이집트학 개론』은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이집트 파라오와 관련하여 상·하 이집트의 상징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상·하 이집트로 나누어져 있던 이집트는 주전 3100년경 왕국이 통일되었다. 하지만 그 왕권은 각각 유지되었다. 파라오가 머리에 쓴 ‘데슈레트’(deshtret)라는 적관(赤冠)은 하 이집트를, ‘헤제트’(hedjet)라는 백관(白冠)은 상 이집트를 나타내었는데, 상·하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셈티’

(shemty)라는 이중 왕관을 썼다. 하 이집트의 식물 상징은 델타 지역에 자라는 파피루스였으며, 그 반면에 상 이집트의 그것은 연꽃이었다. 또 파라오의 왕관에 부착된 동물 상징은 하 이집트의 경우 부토(Buto) 지역에서 숭배되던 여신 ‘와 제트’(Wadjet)를 의미하는 코브라였으며, 상 이집트의 경우 여신 ‘네 크베트’(Nekhbet)를 나타내는 독수리였다.

III. 이집트 성지의 지역별 안내

1. 하 이집트(Lower Egypt)

하 이집트는 나일 강 하류 델타 지역을 가리키는데, 현재의 카이로 근처를 정점(頂点)으로 북쪽 지중해를 향하여 역삼각형으로 펼쳐진 남북 길이 184km, 동서 길이 200km의 크기를 가진, 나일 강의 퇴적에 의해 형성된 삼각주 지역이다. 고대에는 카이로를 정점으로 하여 7개

의 지류(支流)가 부챗살처럼 갈라져 지중해로 흘러 들어갔으며, 간선 도로들이 델타의 정점을 향하여 강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나 있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 살던 유목민들이 기근의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았던 곳이며(창 12:10-20), 아굽의 가족 70인이 비옥한 농경지인 델타 지역에 이주하여 정주할 당시 이 유목민들을 위해 구별된 땅 고센(Goshen)을 포함하고 있다(창 46:28-34). 특히 동부 델타 지역인 고센은 요셉 당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Ramses)”(창 47:11)로 불렸으며, 시편의 한 저자인 아삽에 의해 “애굽 땅 소안(Zoan)의 들”(시 78:12)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델타 하류 지역에 나일 강의 지류를 따라 많은 고대 도시가 세워졌는데, 주요 사건이 일어났던 연대순을 따라 대체적으로 열거하면, 부토(Buto), 부시리스(Busiris), 베흐데트(Behdet), 부바스티스(Bubastis), 소안(Zoan), 비돔(Pithom), 이스마일리아 운하(Ismailia

Canal), 사이스(Sais), 나우크라티스(Naucratis), 다바네스(Tahpanhes),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텔 엘 야 후디아’(Tell el Yahudia)와 같은 도시를 들 수 있다. 이들을 가능하면 성경과 관련지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토(Buto)

상·하 이집트가 아직 통일되기 전, 또 역사가 기록되기 전(주전 3100년 이전) 델타 지역이 부(Bu) 또는 호르네트(Hornet) 왕들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 부토는 이 지역의 수도(首都) 역할을 하였다. 왕국 시대 파라오의 왕관에 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로 붙여졌던 뱀은 바로 이곳에서 섬김을 받던 코브라 여신을 상징하였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곳에 있던, 하 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숭배 받던 코브라의 여신 에드조(Edjo) 신전에서 신탁(神託)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텔 엘-파라인’(Tell el-Fara’in)이 바로 부토로 추정된다.

(2) 부시리스(Busiris)

부시리스는 나일 강의 지류인 다미에타(Damietta) 서편에 있는 도시였는데, 고대에는 오시리스(Osiris) 신과 그 아내 여신 이시스(Isis)에게 봉헌되었던 도시이다. 이곳에 오시리스의 등뼈가 묻혔다는 전설과 함께 헤로도토스는 이곳에서 벌어진 대 축제를 언급하였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수만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린 후 스스로를 때렸다고 한다.

(3) 베흐데트(Behdet)

왕국 이전 당시 하 이집트의 수도였던 베흐데트는 왕정인 파라오 시대에 날개를 펼친 원반 형태로 파라오를 보호하는, 매 형상의 수호신 호루스(Horus)에게 봉헌된 이래로 ‘호르의 도시’, 곧 ‘테메-엔-호르’(Teme-en-Hor)로 불렸다. 나중에 호루스 제의(祭儀)의 중심이 상 이집트의 에드푸(Edfu)로 옮겨간 뒤로는 이 도시는 그 중요



부바스티스(텔바스타) 유적

성을 점점 잃어버렸다. ‘테메-엔-호르’라는 고대 명칭의 흔적은 ‘다만후르’(Damanhur)라는 현재의 지명에 아직도 남아 있다. 이 도시는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남서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있으며, 주요한 목화 생산지이기도 하다.

(4) 부바스티스(Bubastis)

부바스티스는 고양이 머리 모양을 한 여신 바스트(Bast)를 섬겼던 도시로, 이집트의 제관들에게 전해 들었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바스트

축제에 7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그 숭배 열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이 신전의 초석을 놓은 때가 고 왕국의 제4왕조 파라오 카프레(Khafre) 당시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도시는 그 이전에 세워진 것이 확실하다. 성경에 언급된 시삭이 포함된, 리비아 계 파라오들이 다스렸던 제 22왕조(주전 10-8세기) 당시 부바스티스는 이집트의 수도였으며, 이때 바스트 신전도 확장되었다. 에스겔에 의하면,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비베셋’(Pi-beseth, פִּי־בִּסֶּתַי)으로(겔 30:17) ‘바스타의

신전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 지명으로는 부바스티스(*Βουβάστις*)이다. 오늘날 이 도시는 '텔 바스타' (Tell Basta)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적지는 현대의 자가지그(Zagazig)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5) 소안(Zoan)

소안은 나일 강 하류의 동편 지류 하안(河岸) 상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이집트 동북쪽 국경 도시인 고대 펠루시움(Pelusium) 서편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도시는 적어도 제6왕조의 파라오 페피(Pepi) I 세(주전 24세기) 이전에 세워졌는데, 성경에 의하면, 헤브론보다 7년 뒤에 건립되었다(민 13:22). 히브리어 성경의 고대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 역본에 의하면, 소안은 타니스(*τάνις*)로 옮겨졌는데(LXX 시 77:12; 사 30:4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도시를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국고성(國庫城) 건축을 위해 부역을 했던 라암셋



타니스의 범람 방지 진흙 벽돌벽

(Ramses, רַמְסֵס , Ραμεσση)으로 여긴다(출 1:11). 그러나 일부 소수의 학자들은 라암셋을 타니스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있는 쿠안티르(Quantir)로 추정하기도 한다. 오늘날 타니스는 아랍어로 ‘산 엘-하갈’(San el-Hagar)로 불린다. 여기서 산(San)은 고대의 소안(Zoan)에 대한 아랍어 명칭이며, ‘산 엘-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의 소안’의 뜻으로 추정된다.

(6) 비돔(Pithom, פִּתּוֹם , Πιθωμ)

출애굽기의 첫 장에서 국고성 건축지로 언급되었던 비돔(출 1:11)은 고대에는 ‘아툼의 집’이라는 뜻의 ‘페르-아툼’(Per-Atum)으로 불렸다고 추정된다. 그 위치는 현재 ‘와디 투밀랏’(Wadi Tumilat) 지역의 어느 곳으로 생각되는데, 가르디너(A. Gardiner)는 그 위치를 ‘텔 엘-레타바’(Tell el-Rebata)로 여겼지만 그 근거가 희박하여, 대



비돔 유적지의 고대 우물



수교 길 : 정홍길 사진

델타 지류에서 끌어들이는 현대 수로와 길

부분의 학자들은 19세기 말 이곳을 발굴한 나빌(E. Naville)을 따라 ‘텔 엘-마스쿠타’(Tell el-Mashkuta)로 추정한다. 혹자는 비돔으로 추정되는 ‘텔 엘-마스쿠타’를 출애굽의 출발점인 숙곳(Succhoth)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출 12:37).

(7) 이스마일리아 운하(Ismailia Canal)

리암셋 II 세(주전 1279-1212년 재위)는 현 지명 자가지그 근처에 나일 강과 홍해를 연결하는 이스마

일리아 운하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파라오 느고(Necho II, 주전 600년 경), 페르시아의 다리우스(Darius) 대왕(주전 522-485년), 프톨레미(Ptolemy II, 주전 285-246년) 때 정비되고 더 깊어졌다. 이 운하는 나일 강에서 시작하여 부바스티스를 지나고 와디 투밀랏을 통과하여 비터 호수(Bitter Lake)로 들어갔다가 호수의 남쪽으로 해서 홍해와 연결되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느고가 이방인(페르시아인)을 위해 운하를 건설한다는 신탁을 믿었던 노

동자들의 운하 건설 반대에 응징하여 12만 명을 죽였다고 한다.

(8) 사이스(Sais)

사이스는 부토 남쪽 나일 강의 로제타(Rosetta) 지류 하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세상을 천 조각처럼 찢다는 창조의 여신 네이스(Neith)에게 바쳐졌던 도시이다. 나일 강의 범람에 대비해 100m가 넘는 높은 인공 흙벽을 쌓아 두른 곳에 세운 대 도시였는데, '사이스 왕조'로 불리는 제26왕조 때(주전 663-525년)에는 이집트의 최대 도시인 수도였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곳에 사당, 방첨탑(Obelisk), 성스런 못이 있던 사이스 신전과 고대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

(9) 나우크라티스(Naucratis)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일 강의 로제타 지류 서쪽에 자리 잡은 나우크라티스는 제26왕조 아흐모세(Ahmosé II, 주전 568-528년)에 의해 그리스와 무역을 위

해 건설된 항구도시였다. 여기서 프삼메티쿠스(Psammetichus I, 주전 663-609년) 당시 그리스 식민지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이집트 내 그리스인 공동체의 중앙 성소인 판헬리온(Panhellion)과 같은 중요한 건물 유적도 발견되었다.

(10) 다바네스(Tahpanhes, *תַּחְפַּנְחֵס, ταφνας*)

다바네스는 델타 동편, '텔 엘-마스쿠타'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펠루시움 지류 하안에 세워졌던 도시로, 지금의 '텔 데프네'(Tell Defenneh)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장막을 쳤던 '바알스본'(Baal-zephon)과 동일시되며(출 14:2), 주전 6세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통치를 위해 임명한 그달리야 살해에 대한 보복을 피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피신한 곳(렘 43:7 = LXX 50:7)이기도 하다. 예레미야는 다바네스 외에 당시 유대인들이 거주했



알렉산드리아의 폼페이 기둥 앞 세라피스 석상

던 애굽 땅의 도시들을 열거하는데, 곧 므돌 (*Μαγδωλ*), 바드로스 (*Παθουρως*), 늪이 그것이다(렘 44:1 = LXX 51:1).

(11)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 마케도냐의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라코티스(Rakotis)의 유적지 근처에 세운 약 6.5km 길이의 대 항구도시로, 근동에 세운 여러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건설된 도시였다. 지정학적으로 이 도시는 지중해와 마레오티스(Mareotis) 호수 사이의 좁은 지협에 위치해 있어, 곧바로 중심 무역항으로 부상했으며, 세워진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프톨레미 I 세(Soter)에 의해 수도가 되었고, 그 이후로 프톨레미 시대(주전 304-30년) 내내 수도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프톨레미 I 세에 의해 대(大) 도서관과 박물관, 세라피스 신전(Serapeum) 등의 건축물이 세



알렉산드리아 제26왕조 프삼메티쿠스 1세 석상

워졌으며, 후계자인 프톨레미 Ⅱ세에 의해 수학, 예술, 물리학, 철학, 천문학, 문학 등의 학문 연구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주전 250년경 이곳에 살던 유대인 학자 72인에 의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본(LXX)은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며, 성경 본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톨레미 Ⅱ세는 유명한 건축가 ‘크니두스의 소스트라투스’(Sostratus of Cnidus)로 하여

금 알렉산드리아 앞 바다의 한 섬에 오늘날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36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파로스(Pharos) 등대를 건축하였다. 또 75만 권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이곳의 대 도서관은 주전 48년 시저(Julius Caesar)의 포위공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안토니우스(Antonius)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는데, 안토니우스는 주전 197년 유메네스(Eumenes) Ⅱ세에 의해 버가모에 건립된 도서관에서 장서 20만 권을 가져와 클레

오파트라에게 주었다. 주전 31년 악티움(Actium)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Octavianus)에게 패전함으로써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치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마가가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로 이 도시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로마 황제 데시우스(Decius, 주후 250년),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7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304년) 때 이곳에 있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으며, 4세기 때에는 아리우스(Arius)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기독교 논쟁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12) 텔 엘 야후디아(Tell el Yahudia)

‘텔 엘 야후디아’는 안티오쿠스(Antiochus) IV세(Epiphanes)에 의해 해임되었던 대 제사장 오니아스(Onias) III세의 아들 오니아스 IV세가 주전 162년 시리아의 안티오

쿠스 V세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임명한 알키무스(Alkimus)를 피해 하나님을 예배할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정착한 곳이다.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오니아스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유사한 성전 건축을 요청하는 편지를 프톨레미 VI세(Philometor, 주전 180-145년)와 그 아내 클레오파트라(Cleopatra)에게 써서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 세운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바로 이곳이다. 이 도시는 19세기 말 고고학자 나빌(E. Naville)과 그리핀(L. Griffin)에 의해서 고대의 레온토폴리스(Leontopolis)와 동일시되었다.

IV. 나가는 말

앞에서 필자는 고대 인류 문명의 중심지이자 성지 이스라엘 주변의 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으로 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던 이집트의 성지 일부를

::성경과 성지

가능하면 성경과 교회사와 관련지어 소개하였다. 다음 호에 게재될 ‘이집트의 성지 Ⅱ’에서 필자는 ‘하 이집트’에 이어 ‘중부 이집트’, ‘상 이집트’, ‘시내 반도’의 성지

를 차례대로 안내하고, 이집트의 성지 연구와 답사를 위한 참고 문헌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Clayton, Peter A. *Chronicle of the Pharaohs*. 정영목 역. 『파라오의 역사』. 서울: 까치, 2002.
- Herodotus. *Historiae*. 박현태 역. 『헤로도토스 역사』. 서울: 동서문화사, (1977) 2008. 제2권.
- Hoerth, Alfred J. *Archaeology &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8.
- Putnam, James. *An Introduction to Egyptology*. London: Quantum Books, 1998.
- Vos, Howard F. *An Introduction to Bible Geography*. 한정건·신득일 공역. 『성경지리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Wilkinson, Toby.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ncient Egypt*. London: Thames & Hudson, 2005.
- Wycliffe *Historical Geography of Bible Lands*. Chicago: Moody Press, (1967) 1979.

:: 장흥길 성균관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독일 에어랑겐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